

최근의 김 산업 동향과 2007년산¹⁾ 김 생산 전망 및 시사점

옥 영 수 부연구위원 · 안 재 현 책임연구원
/ 수산업관측센터

<차 례>

- I. 서론
- II. 김 생산 및 시설 실태
- III. 외국의 생산 동향과 수출입 현황
- IV. 2007년산 김 생산 전망
- V. 시사점

I. 서론

김은 가장 오래된 양식품목의 하나로서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부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품목이다. 뿐만 아니라 레저활동의 증가에 따라 김밥 소비는 급속히 늘고 있으며 이는 서구식 패스트푸드에 대항할 수 있는 전통식 단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루라고도 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조미김, 다양한 맛김 등이 개발되면서 술안주, 간식 등으로 소비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김은 국민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품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가격은 20여년 이상 변

하지 않고 있어 생산자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김 가격이 이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김 소비가 그에 상응할 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생산자들은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유통협약 등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의 유통협약 지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생산자에 의한 이러한 시도는

1) 연도별 생산량이 아니라 주생산기를 중심으로 당년 9월경부터 익년 5월경까지의 생산량을 의미함.

생산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의식을 어업자들에게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자들은 가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의 생산조절로 인해 가격 상승의 조짐을 보이자 여타 지역에서는 시설량을 늘이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는 자칫하면 선진화된 일부생산자들의 협조의를 저하시켜 생산자들의 무한경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어업생산체제를 일거에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중단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국내생산기반을 공고하게 정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김을 둘러싼 최근의 생산동향과 수출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07년산 김 생산 전망을 하였다. 이러한 생산 전망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있어 적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통해 생산자는 생산 조절을 꾀할 수 있게 되고 정책 입안자에 있어서는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자유화는 자칫 산업기반을 와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생산,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II. 김 생산 및 시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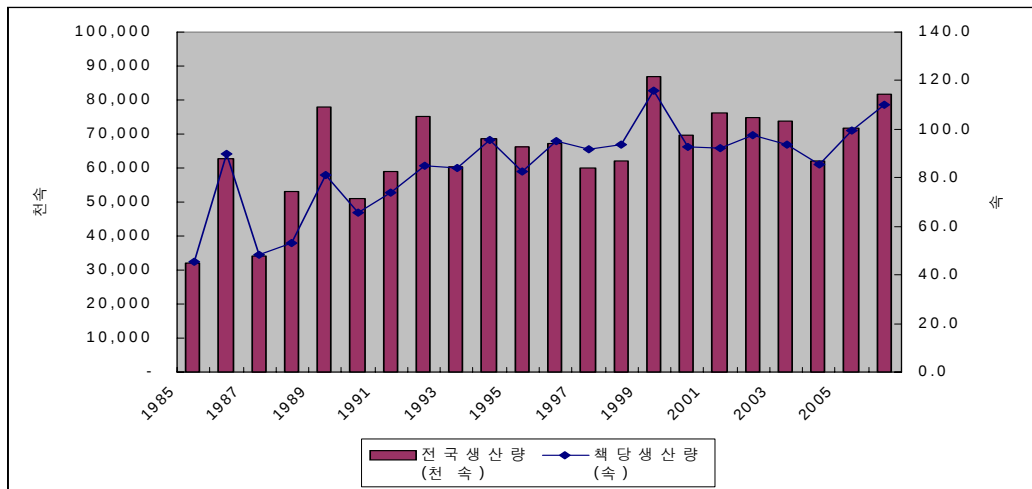
1. 생산 실태

김이 최초로 생산된 것은 조선시대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김 생산은 크게 늘어나 현재까지 양식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의 하나가 되고 있다. 김은 생태학적으로 겨울에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채취 이후에 햇볕에서 건조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 이후 도시화 추세에 따라 어촌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한때 생산이 정체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김 가공공장에 의해 건조과정이 기계화됨에 따라 생산과 1차 가공이 분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 생산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김 생산은 연간 3,000만~5,000만 속에 머물고 있었으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7,000만~8,000만 속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그림-1> 참조). 2000년대 이후 김 생산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정체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생산기술의 진화속도가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간척, 매립 등의 진전으로 양식적지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이후 올해까지 3년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금년산의 경우 8,200만 속을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김 생산량은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통계의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을

〈그림-1〉 전국 김 생산량 추이 및 해당 생산량 변화



〈표-1〉 월별 김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톤

연도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04년산	396	4,132	13,952	18,923	23,781	38,085	16,241	209	115,719
2005년산	509	5,076	11,252	17,932	24,463	28,008	17,344	546	105,130
2006년산	586	4,887	13,863	17,629	25,970	28,920	17,224	1,736	110,82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수산물측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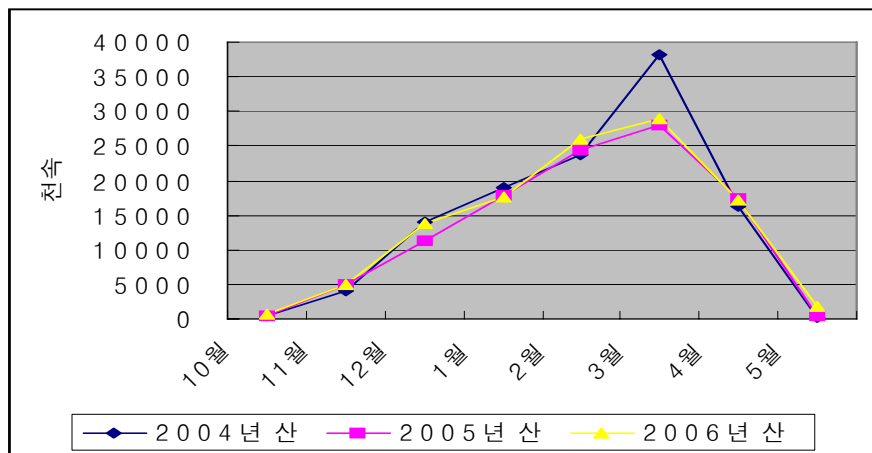
야기하였다. 그것은 통계량 집계 과정에서 불법 면허지의 생산량이 누락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협에 의한 지정판매제(강제상장제)가 폐지되어 생산자와 상인들 간의 직판이 늘어나면서 생산량 노출을 꺼리게 된 데도 큰 원인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2004년부터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매월 표본어가에 의한 작황조사를 거쳐 생산량을 정밀 조사하게 되었다. 수산업관측센터에 의한 생산량 조사결과는 2004년산의 경우 1억 1,500만 톤, 2005년산 1억 500만 톤, 2006년산의 경우 1억 1,000만 톤으로 조사되

어 공식통계와 큰 차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이와 같은 문제는 향후 통계방법과 공표의 정밀한 정책연구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떤 방법에 의하든 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월에 첫 수확이 이루어진 이후 이듬해 2월, 3월에 최고 생산량을 보이며 4월 말이면 대부분 생산해역에서 종어기를 맞게 된다. 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그림-2〉 최근 3개년간 월별 김 생산 동향



〈표-2〉 2005년산 및 2006년산 지역별 생산 동향

단위 : 만 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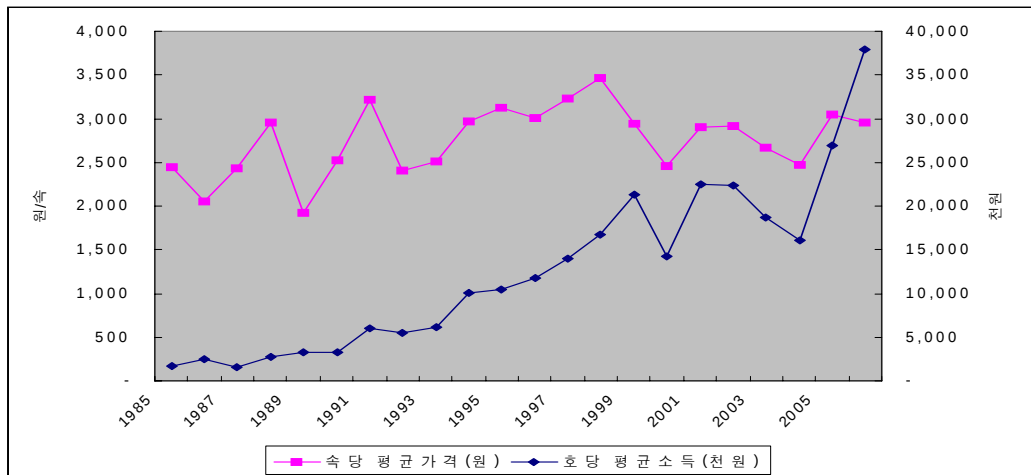
시·도	시·군·구	2005년산 (A)	2006년산 (B)	증감률 (B/A, %)	점유율 (%)
합 계		10,513	11,082	5.4	100.0
전남	소 계	7,225	7,775	7.6	70.2
	신안	1,422	1,294	-9.0	11.7
	진도	1,438	1,578	9.7	14.2
	해남	1,203	1,835	52.5	16.6
	완도	1,568	1,319	-15.9	11.9
	고흥	774	958	23.7	8.6
	기타(목포, 무안, 장흥, 강진, 함평)	820	791	-3.5	7.1
전북	군산, 고창, 부안	1,279	1,215	-5.0	11.0
충남	태안, 서천, 보령	676	1,061	57.0	9.6
부산	강서	965	709	-26.5	6.4
인천·경기	옹진, 강화, 안산, 화성	368	322	-12.5	2.9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수산물추적백서」.

것이 해수온도와 영양염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수온이 유지되면 5월 이후에도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4월 말이면 종어가라고 할 수 있다(〈그림-2〉 참조).

2006년산 김 생산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전북, 충남, 부산, 인천 및 경기의 순을 보이고 있다. 김의 주요 생산지를 보면 전남에서는 해남, 신안, 진도, 완도,

〈그림-3〉 김 가격 및 김 생산 어가소득 추이



고흥 등이며, 전북은 군산, 고창, 부안 등이다. 부산은 낙동강 하구인 강서구에서, 충남은 태안, 서천, 보령 등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며, 인천 및 경기도는 옹진, 안산, 화성 등이 주요 산지라고 할 수 있다(<표-2> 참조).

2006년산 김 생산량은 2005년산에 비해 5.4% 증가한 1억 1,082만 속이고, 시설규모는 68만 5천 척으로서 2005년산에 비해 1.3%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시설척수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국민들의 김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가격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횡보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3> 참조).

2. 시설 실태

1) 인공위성에 의한 시설 실태

종래 김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에는 많은

의문이 있었다. 공표되는 생산량과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추정량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1990년대 중반 수협에 의한 지정판매제가 폐지되고 자유판매제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그 이전에도 지정판매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임의판매를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단속에 의해 임의판매는 상당 부분 억제되었으므로 수협 계통판매량만 집계하여도 전체 생산량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유판매제가 도입되고부터는 수협에 의한 계통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생산량 추정의 기본골격이 와해되어버렸다. 더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김 가공공장의 확산은 김 생산 및 유통 구조를 변화시켜 정확한 생산량 추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나마 생산량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던 김 면허면적조차도 불법면허지의 성행과 밀식으로 전체 규모를 가능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정확한 생산통계의 근원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

〈표-3〉 2005년 및 2006년산 김 시설분포

단위 : 책, %

구분	2005년산				2006년산					B/A
	허용기준	실제시설(A)		준법시설	허용기준	실제시설(B)		준법시설 (C)	C/B	
		책수	구성비			책수	구성비			
전국	572,745	676,749	100.0	358,123	687,026	685,373	100.0	411,789	60.1	1.3
부산(강서)	16,495	38,528	5.7	18,519	20,160	25,404	3.7	13,251	52.2	-34.1
경기	16,130	16,499	2.4	10,011	14,724	14,724	2.1	14,724	100.0	-10.8
충남 (서천)	22,945 (15,743)	48,712 (42,887)	7.2 (6.3)	22,579 (19,128)	58,029 (33,867)	64,602 (60,458)	9.4 (8.8)	23,600 (22,021)	36.5 (36.4)	32.6 (41.0)
전북 (군산)	32,141 (20,448)	80,537 (71,647)	11.9 (10.6)	9,497 (5,432)	45,216 (21,978)	96,679 (85,938)	14.1 (12.5)	14,916 (8,116)	15.4 (9.4)	20.0 (20.0)
전남 (신안) (해남)	485,034 (85,155) (95,953)	492,473 (128,996) (82,874)	72.8 (19.1) (12.2)	297,517 (77,890) (48,218)	548,897 (94,480) (91,547)	483,964 (96,877) (104,725)	70.6 (14.1) (15.3)	345,298 (54,690) (85,523)	71.3 (56.5) (81.7)	-1.7 (-24.9) (26.4)

주 : 1) 허용기준 :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설가능책수(법정면허시설).

2) 실제시설 : 해당 지역의 시설책수 총합.

3) 준법시설 : 실제시설 중 법정면허지내 시설책수.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인공위성 영상 판독결과(2005년, 2006년).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생산량 추정에는 김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의 하나가 되었다. 인공위성에 의한 시설 실태의 파악은 정확한 김 생산량 추정과 향후 합리적인 김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긴요하게 실시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위성에 의한 김 시설 실태 파악은 정보화 정책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수산업관측센터의 중요한 역점사업의 하나로 2005년 처음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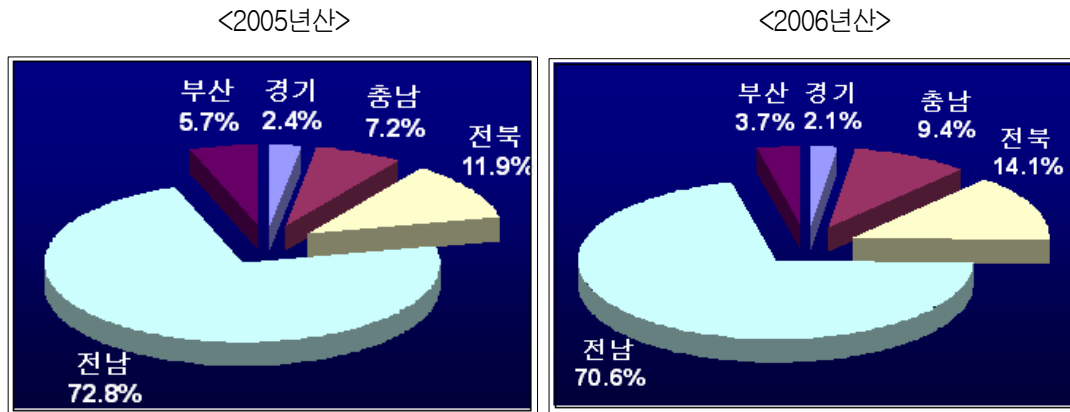
2005년에 이어 2006년에 실시된 인공위성에 의한 김 시설 실태 조사 결과²⁾, 2006년산 총 시설책수는 68만 5,373책으로 2005년산 67만 6,749책보다 1.3%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군의 부과량인 허용기준 책수 68만 7,026책보다는 오히려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산 시설책수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48만 3,964책으로 전국 시설량의 70.6%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과 충남의 순을 보이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10만 4,725책으로서 전국 시설량의 15.3%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안군이 9만 6,877책으로 14.1%를 점하고 있다(〈표-3〉 및 〈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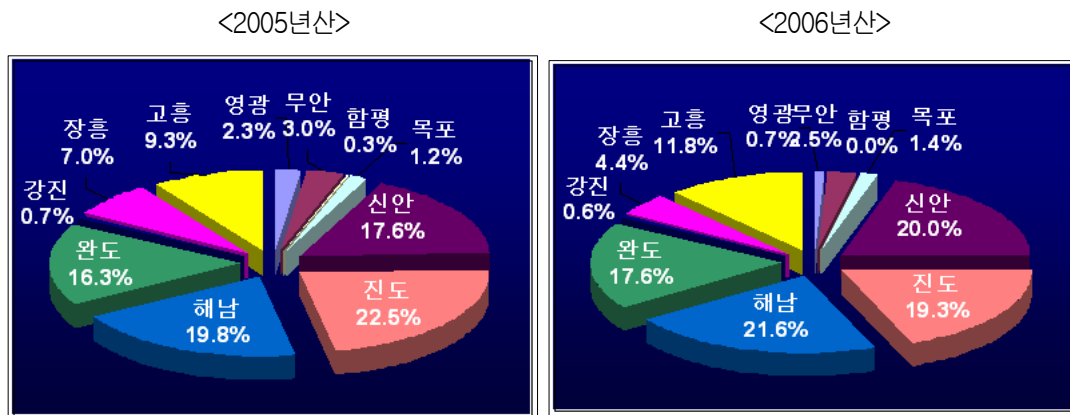
이를 다시 2005년산과 비교해 보면 부산, 경기, 전남에서 시설책수가 감소한 반면 충남, 전북은 크게 증가하였다. 즉 부산의 경우 2005년에 비해 34.1% 감소하였으며 경기는 10.8%, 그

2) 다만 FORMOSAT-2 위성을 이용하여 김 및 어패류 해상가두리를 대상으로 39개 지역에서 2006년 2~3월 까지 촬영.

〈그림-4〉 2005년 및 2006년산 김 시설분포(전국)



〈그림-5〉 2005년 및 2006년산 김 시설분포(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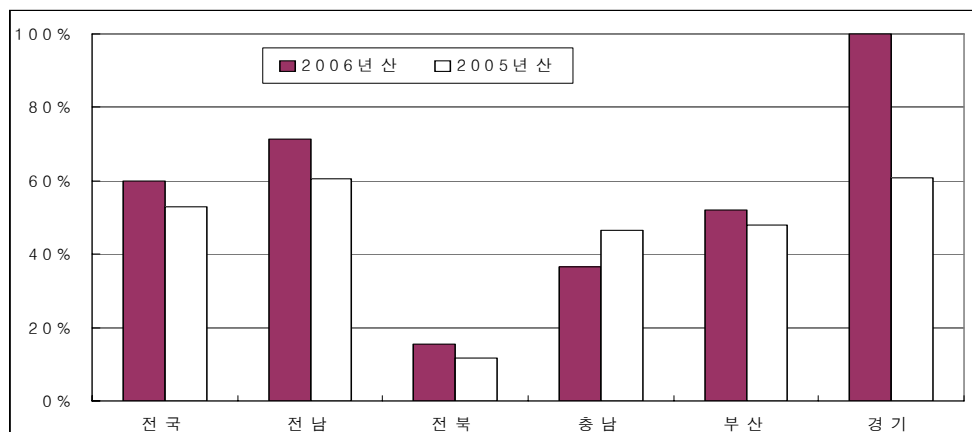
리고 전남은 1.7% 감소하였다. 반면 충남의 경우 32.6%, 전북의 경우 20%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는 1.3% 증가하였다. 전국 시설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에 있어서는 시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종래 시군단위로서 전국 최대의 시설규모를 보이고 있던 신안군은 크게 감소한 반면 해남군은 크게 증가하여 대비를 보이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전남 관내의 시군별 시설규모 순을 보면 해남군이 2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안군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진도 19.3%, 완도 17.6%, 고흥 11.8%, 장흥 4.4%의 순을 보이고 있다.

2) 시설 양태

지역별 허용기준과 실제시설량을 비교해보면, 부산,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신안·해남·강진·고흥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허용기준을 초과하

〈그림-6〉 시도별 및 연산별 실제 김 시설에 대한 준법시설비율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은 허용기준 대비 실제시설이 391%, 서천은 178%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과잉시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허용시설규모가 축소된 곳으로서 여전히 과잉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실제 시설책수 중 법정면허지 내에 시설된 준법시설비율은 2005년산의 경우 52.9%였으나 2006년산은 60.1%로 상당한 비율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설규모가 과잉상태에 있다는 인식하에 전국적으로 불법면허지에서의 시설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준법시설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불법면허지에서의 시설규모를 축소한 것도 한 원인이 되지만 이 외에 시군에서 부과하는 허용기준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 있다. 즉 시군에서 허용하는 허용시설기준이 전국적으로 2005년 대비 20% 증가한데도 한 원인이 있다. 허용시설기준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면허지에서의 시설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그림-6〉 참조).

지역 내 준법시설비율은 전국평균이 60.1%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 71.3%, 부산 52.2% 순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전북은 15.4%로 준법시설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새만금간척지구 내의 김 양식장이 보상을 받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식을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III. 외국의 생산 동향과 수출입 현황

1. 중국과 일본의 생산동향

김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며, 미국(하와이), 칠레, 캐나다 등은 현재 시험양식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추세는 <표-4>와 같다.

일본은 최근 수년간 중국 김 산업에 대한 자

〈표-4〉

한·중·일 김 생산추이

단위 : M/T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	130,488	167,909	209,995	193,553	228,554
중국	481,590	583,990	670,620	727,530	810,170
일본	391,681	373,121	436,031	347,354	358,929

자료 : FAO,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각 년도.

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김 수입 산지로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대상 품종은 일본에서 식용으로 이용하는 방사무늬김이며, 중국에서의 김 생산 및 가공기술이 발전하여 품질이 향상되면 중국산 김의 대일본 수출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06년 들어 단김³⁾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일본기업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여 단김의 생산력 증대 및 상품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김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한중일 3국의 김 제품 간 국제 경쟁이 가격 및 품질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수출입 동향

1) 개괄

우리나라 외에 김을 식용으로 소비하는 국가는 일본, 미국, 대만, 중국 등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김 수출량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김 수출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와 김 수출업체가 노력한 결과 연평균 7.9%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7,581톤의 김을 수출하였다. 수출

금액도 2000년 3,102만 달러에서 2005년 5,424만 달러로 연평균 11.8%씩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중국의 2005년산 김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수출량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수출량도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김 수출 품목은 크게 마른김, 조미김 및 기타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조미김 수출량이 2005년 555만 속으로 전체 김 수출량 878만 속 중 63.2%를 차지하였으며, 수출금액에서도 조미김 수출액이 전체 김 수출액의 62.1%인 3,590만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2) 대일수출

일본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제품 수입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949년부터 수산물 IQ(수입할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4년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공산품과 농산물 분야에서 IQ제도의 철폐 내지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수산물은 김을

3) 단김(*Porphyra haitanensis*, 壇紫菜) : 중국 토종 김으로 자체 소비되거나 주로 동남아시아에 가공제품 형태로 수출됨.

〈표-5〉 연도별 김 제품별 수출 실적

단위 : 만 속, 만 달러

구 분	마른김		기타김		조미김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3년	269	1,480	46	278	352	2,399	666	4,156
2004년	228	1,361	44	200	433	2,933	705	4,613
2005년	280	1,602	43	232	555	3,590	878	5,183
2006년 6월까지	228	1,307	23	137	261	1,645	512	3,089

주 : 관세청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마른김을 환산(대일 마른김 수출물량은 속당 260g을 적용)하였고, 냉장김과 냉동김은 제외하였음. 2006년 6월은 잠정치임.

〈표-6〉 일본의 김 IQ 변동 추이

단위 : 만 속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69	120	150	180	210	240	400	585
수요자 할당1)	46	76	94	112	130	148	244	233
상사 할당2)	18	19	24.2	30.2	36.2	43.7	97	337
선착순 할당3)	5	25	31.8	37.8	37.8	48.3	59	15

주 : 1) 수요자 할당 : 일본 수산청 허가서에 따라 관련 생산, 가공업체가 할당하는 방식.

2) 상사 할당 : 일본 수산청 허가서에 의거 일정기간 내 수입 통관실적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

3) 선착순 할당 : 당해 품목의 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 선착 순위로 할당하는 방식.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2005. 6.

포함한 17개 어종 59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공식적인 한국 김의 일본 수출은 1946년 114만 속을 수출한 것이 시작인데, 이 때는 일본 김 수입협회가 독점적으로 수입하였다. 1978년부터 1994년까지는 일본 내 냉동망 개발에 따른 생산증대와 한국내 소비증가로 김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1995년에 재개되었고, 1998년까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공고한 수입할당량과 그 물량 범위에서 민간협의기구가 별도 합의물량을 정하였다. 1999년 일본 정부가 김 수입 할당량을 69만 속으로 정한 이후 대일 김 수출량은 매년 증가하여 2002년 180만 속, 2004년 240만 속으로 정해졌다. 2005년에는 일본의 김 IQ 글

로벌화⁴⁾ 정책에 따라 수요자 할당으로 164만 속을 배정받았다. 이후 양국간 재협상 과정을 통해 2006년에는 일본 수입 IQ 총 585만 속 중 우리나라가 340만 속을 할당받았다. 대일 수출 쿼터 증가에 따라 한국산 김의 일본 시장점유율은 2004년 약 2%에서 향후 10년간 15% 수준까지

4) 2004년 10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사전 양해 없이 김 IQ 글로벌화를 발표하여 중국 김의 일본시장 진입을 허용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일본 IQ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음. 이후 일본의 재협상 요구에 따라 2006년 1월 양국 정부는 2006년 한국산 김의 대일 수출 쿼터를 340만 속으로 하고 2015년까지 1,200만 속으로 늘리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였음.

증가할 전망이다.

3) 대미 등 기타 수출

올 상반기 김 수출량은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하락이 지속되어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512만 속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중국의 김 작황 부진으로 중국산 김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조미김 소비량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김의 해외수요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미 김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인 교포를 중심으로 김 소비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쌀을 소비하는 일본계 및 중국계 거주민들이 한국산 조미김을 선호하기 시작하여 국산 김 소비층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금액면에서도 대미 김 수출액은 1,856만 달러로 2005년 전체 김 수출액의 35.8%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 6월까지 999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조미김의 최대 수출국으로 2005년 조미김 전체 수출물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까지 매년 감소추세이던 대만으로의 김 수출량은 2005년 92만 속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하였고, 2006년 6월까지의 수출량도 작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48만 속을 기록하였다. 제품별로 보면 2005년 마른김 수출량이 47만 속으로 전년 대비 56.7% 증가하였고, 조미김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45만 속이 수출되었다. 대만으로의 마른김 수출량 증가는 2004년 중국의 김 작황 부진으로 중국 마른김의 해

외시장 가격이 상승하여 대만의 마른김 수입량 대부분을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산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2005년 대만으로의 김 수출액은 전체 김 수출액의 10.7%인 552만 달러였으며, 2006년 6월까지 289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IV. 2007년산 김 생산 전망

1. 생산 전망에 있어서 고려사항

김 생산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인들은 인위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것도 있다. 과거에는 생산양식이 자연의존적인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인위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기술진보 등에 의해 인위적인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위적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설의 양식수를 들 수 있다. 이는 농업에 있어서 토지면적과 같이 생산의 기반을 의미한다. 양식업에 있어서도 농업에서의 토지면적과 같은 시설면적이 있을 수 있지만 시설방법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생산증대를 위해 밀식이 행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면적보다는 시설규모를 의미하는 시설책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래는 자연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오늘날 기술진보에 따라 인위적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요인으로서 채묘 및 양성시기

와 작황을 들 수 있다. 채묘 및 양성시기도 자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해상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품종을 달리 하여 채묘를 한다든지, 채묘방법을 변경한다든지 하여 인위적인 조절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작황도 기본적으로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냉동망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성 방법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기에는 작황이 자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종개량, 양성 방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자연적 요인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양식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양식업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해수의 염분농도와 온도에 따라 생산량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더구나 한 해의 생산량을

전망한다는 것은 비교적 단기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수온도 등 자연적 요인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위적 요인

1) 김 시설 의향책수

김 생산을 추정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인 시설책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시설 책수는 전형적인 인위적 요인으로서 김 가격, 자연적 조건, 인근지역의 생산동향 등을 감안하여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생산자들의 시설 의향책수로 시설책수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 의향책수는 글자 그대로 생산자들이 금년도에는 김 시설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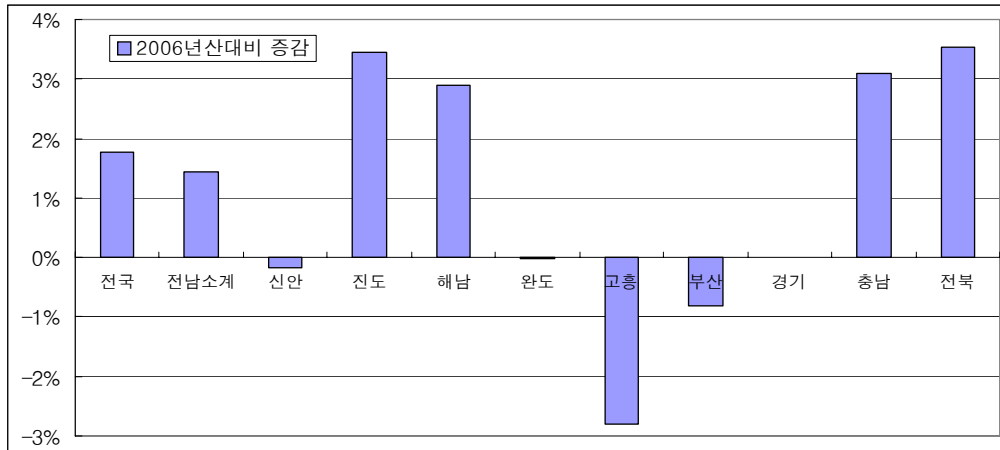
〈표-7〉 2007년산 김 생산 지역별 시설 의향책수

단위 : 책, %

구분	2006년산(위성판독결과)	2007년산(의향조사결과)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685,373	697,512	1.8
전남 소계	483,964	490,899	1.4
신안	96,877	96,718	-0.2
진도	93,238	96,455	3.5
해남	104,725	107,755	2.9
완도	85,332	85,307	-0.0
고흥	56,921	55,327	-2.8
기타	46,871	49,336	5.3
부산	25,404	25,196	-0.8
경기	14,724	14,724	-0.0
충남	64,602	66,600	3.1
전북	96,679	100,093	3.5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그림-7〉 2007년산 김 생산 시설의 2006년산 대비 증감률



〈표-8〉 연산별 품종별 김 시설의향 비율 조사결과

단위 : %

구분	합계	일반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2006년산(9월 전망)	100.0	52.1	23.1	24.8
2006년산(11월 시설)	100.0	54.2	18.9	27.0
2007년산(7월 전망)	100.0	54.6	15.6	29.8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표-9〉 연산별 양식방법별 김 시설의향 비율 조사결과

단위 : %

구분	지주식	노출부류식	무노출부류식	합계
2006년산(9월 전망)	28.1	41.8	30.1	100.0
2007년산(7월 전망)	26.4	45.1	28.5	100.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적인 의향을 나타내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수산업관측센터의 설문조사에 의한 2007년산 김 시설의향 조사결과는 <표-7>과 같이 약 69만 8천 척으로서 2006년산 시설에 비해 1.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금년산 대비 전북 3.5%, 충남 3.1%, 전남이 1.4%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은 0.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생산이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해남군은 2.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흥은 2.8%, 신안은 0.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7> 참조).

품종별 시설비율을 보면 2006년산에 비해 일반김과 모무늬돌김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된 반면 잇바디돌김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8> 참조). 또 양식방법에 따른 시설 비율은 노출부류식이 45.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무노출부류식과 지주식은 각각 28.5%, 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9> 참조). 이를 2006년산과 비교해 보면 노출부류식의 점유율이 3.3%포인트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 채묘 및 양성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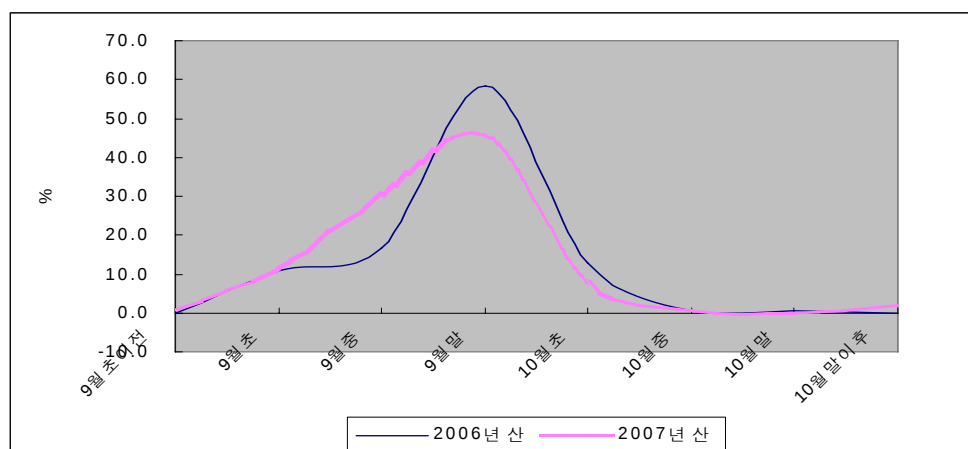
2007년산 김 채묘시기는 2006년산보다 다소 빠르게 이루어졌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9월 말경에 한다고 답한 표본어가의 비율이 45.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2006년산에 비하

<표-10> 2006년산 및 2007년산의 채묘시작 시기

구 분	2006년산(2005년 9월 전망)		2007년산(2006년 7월 전망)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9월 초 이전	0	0.0%	1	0.6%
9월 초	17	10.9%	18	11.6%
9월 중	26	16.7%	47	30.3%
9월 말	91	58.3%	71	45.8%
10월 초	20	12.8%	12	7.7%
10월 중	1	0.6%	1	0.6%
10월 말	1	0.6%	0	0.0%
10월 말 이후	0	0.0%	3	1.9%
합계	156	100.0%	155	100.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그림-8> 2006년산 및 2007년산의 채묘시작 시기 비율



면 다소 낮은 비율로서 대신 그 이전에 시설한 다는 비율은 2006년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10> 참조).

즉 2007년산의 경우 9월 중순 이전에 채묘를 하겠다고 답한 어가비율은 42.5%(9월 초 이전 0.6%, 9월 초 11.6%, 9월 중순 30.3%)로서 2006년산 27.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진도와 부산이 9월 초로 특히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남과 완도가 9월 중

순, 그 외 지역은 9월 말에 채묘를 시작할 것으로 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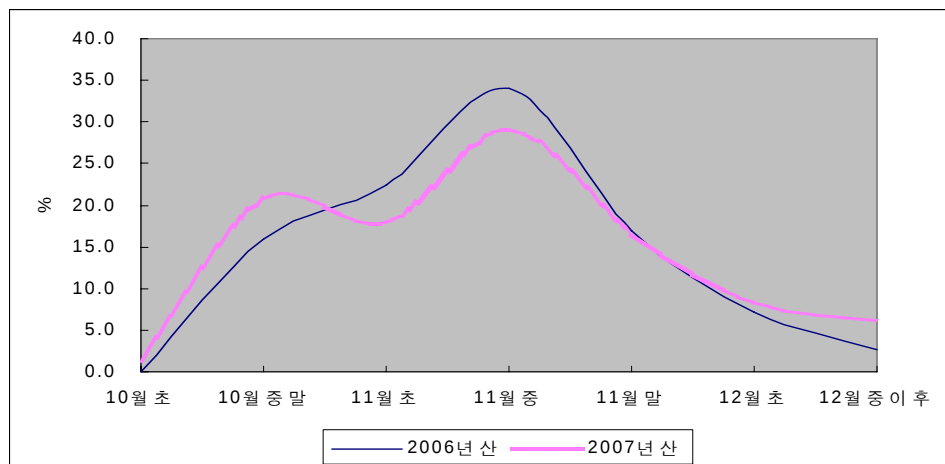
채묘시기가 2006년산보다 대체로 빨리 이루어짐에 따라 초사리 채취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10월경에 초사리 채취가 이루어질 것으로 답한 어가비율이 22.1%로서 2006년산의 16.0%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해남과 진도가 10월 중순부터, 부산은 10월 말, 충남과 전북은 11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1> 초사리 채취 시기

구분	2006년산(2005년 9월 전망)		2007년산(2006년 7월 전망)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10월 초	-	-	2	1.4
10월 중말	25	16.0	30	20.7
11월 초	35	22.4	26	17.9
11월 중	53	34.0	42	29.0
11월 말	28	17.9	24	16.6
12월 초	11	7.1	12	8.3
12월 초 이후	4	2.6	9	6.2
합계	156	100.0	145	100.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그림-9> 초사리 채취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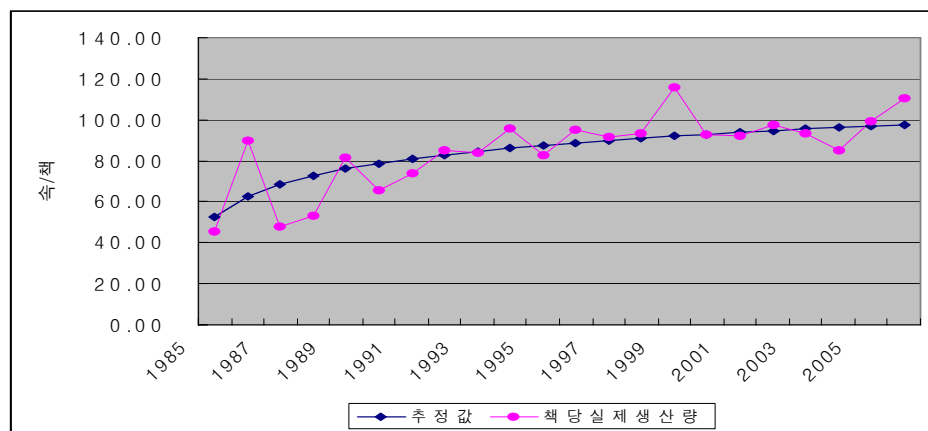


〈표-12〉 연산별 김 책당 생산량과 추정생산량 및 차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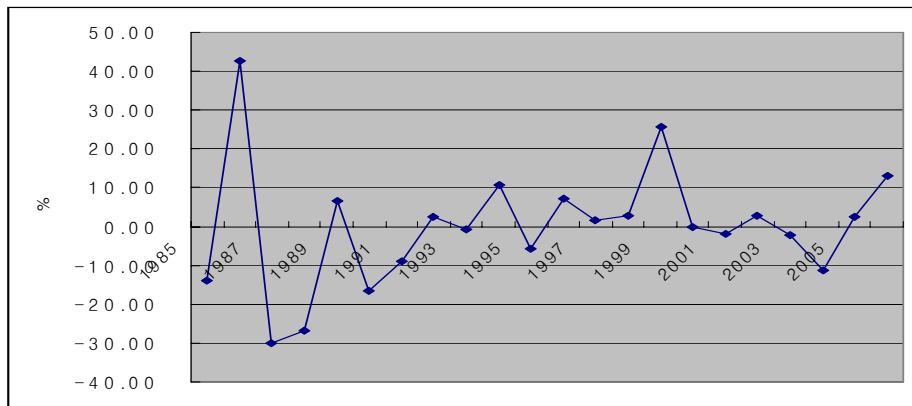
연산	책당실제생산량(속/책)	추정생산량(속/책)	차이값(속/책)	차이율(%)
1985	45.48	52.79	- 7.31	-13.85
1986	89.63	62.83	26.80	42.65
1987	48.08	68.70	-20.62	-30.02
1988	53.26	72.87	-19.61	-26.91
1989	81.25	76.10	5.14	6.76
1990	65.62	78.74	-13.12	-16.67
1991	73.65	80.98	- 7.33	- 9.05
1992	84.96	82.91	2.04	2.47
1993	84.01	84.62	- 0.61	- 0.72
1994	95.41	86.14	9.27	10.76
1995	82.50	87.52	- 5.02	- 5.74
1996	95.28	88.78	6.49	7.31
1997	91.53	89.94	1.59	1.77
1998	93.46	91.02	2.45	2.69
1999	115.65	92.02	23.64	25.69
2000	92.81	92.95	- 0.14	- 0.15
2001	92.09	93.83	- 1.74	- 1.86
2002	97.41	94.66	2.75	2.91
2003	93.45	95.44	- 1.99	- 2.09
2004	85.34	96.18	-10.84	-11.27
2005	99.31	96.89	2.42	2.50
2006	110.21	97.56	12.65	12.96
2007	?	98.21	?	?

자료 : 전라남도청 어업생산과.

〈그림-10〉 김 단위 생산량 변화 및 추세치 동향



〈그림-11〉 김 단위생산량의 실제값과 추정값과의 차이율 변화



3) 작황 동향

단기에 있어서 작황은 자연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따라 작황을 나타내는 단위당 생산량은 일정한 추세치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일정한 추세치가 기술진보에 따른 인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치는 산업이나 국가별 생산환경에 따라, 또는 품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전라남도의 공식생산량을 기초로 한 김의 연산별 책당 생산량은 <표-1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데 1985년산의 경우 책당 45.48속을 보였으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산의 경우 110.21속으로 거의 2.5배의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⁵⁾ 이러한 연산별 책당 생산량의 증가추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율에 한계를 보여 로그함수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그림-10> 참조).

책당 생산량의 추세치 동향을 로그함수로 본 것은 <그림-11>에서와 같이 실제 생산량과 로

그함수를 상정한 추정값과의 차이율 변화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1980년대만해도 차이율이 연산에 따라 30~40%의 큰 차이를보였으나 점차 안정화 경향을 보여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10% 내외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특이한 것으로는 2004년산 이후 2년간 책당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단기적 현상으로서 자연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자연적 요인

김 생산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지만 기술개발 등의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극

5) 이는 전라남도의 공식생산량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었다. 따라서 당 센터에서 추정한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이보다 더 높아진다. 금년도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당 센터의 추정생산량을 기초로 하여 책당 생산량이 계산되어야 하나 축적된 데이터가 2005년산 이후이므로 과거 추세치를 알기 위해서는 공식생산량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추세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 추정에 있어서는 최근의 실제 생산량을 적용하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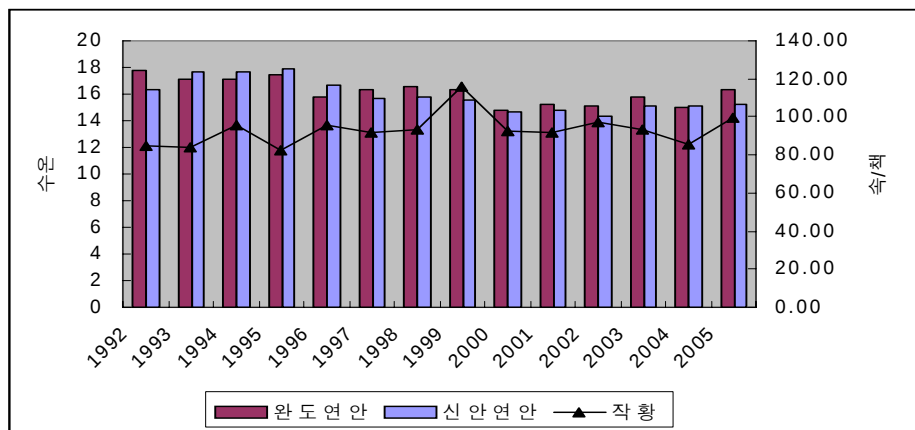
<표-13> 전남 연안별 평균 해수온도(표층) 및 평균 작황 추이

단위: °C, 속/척

연도	해 수 온 도			작황
	완도연안	신안연안	평균	
1992	17.8	16.3	17.05	84.96
1993	17.1	17.7	17.40	84.01
1994	17.1	17.7	17.40	95.41
1995	17.4	17.9	17.65	82.50
1996	15.8	16.7	16.25	95.28
1997	16.3	15.7	16.00	91.53
1998	16.6	15.8	16.20	93.46
1999	16.3	15.6	15.95	115.65
2000	14.8	14.7	14.75	92.81
2001	15.2	14.8	15.00	92.09
2002	15.1	14.3	14.70	97.41
2003	15.8	15.1	15.45	93.45
2004	15.0	15.1	15.05	85.34
2005	16.3	15.2	15.75	99.31

자료 : 국립수산물과학원 및 전라남도.

<그림-12> 전남 연안별 평균 해수온도(표층) 및 평균 작황 추이



복되어온 요인은 인위적 요인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순수하게 자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수온도, 염분농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김 생산지인 전남 연안의 평균해수온도 및 작황 추이는 <표-13> 및 <그

림-12>와 같다. 이에 의하면 해수온도는 김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연안 표층수의 수온이 높으면 작황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고 수온이 낮으면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완도 및 신안의 연안 표층

수는 1990년대 초에는 17℃ 전후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2000년대 초 15℃를 밑돌기까지 하였다. 이후 다시 조금씩 수온이 상승하여 2005년에 이르러서는 16℃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김 작황을 보면 1990년대 초 책당 84숙 수준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1999년에는 115.65숙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시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2004년을 바닥으로 2005년에는 다시 크게 상승하여 99.31숙이 되었다. 이와 같은 김 작황의 증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년에도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은 해수온도가 김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금년 겨울의 해수온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2007년산 김 작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제해양연구기관에서는 올해 초부터 해수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⁶⁾ 엘니뇨는 1997년과 1998년에 크게 발생했는데, 올해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해수온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해수온도가 1℃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김 작황은 예년의 3~5% 정도는 쉽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인위적 요소에 의해서 상승경향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비율의 감소를 보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감소경향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산 김 생산량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2007년산 김 생산량 추정

1) 추정 방법

2007년산 김 생산량을 추정함에 있어 세 가지 요인을 통해 추정하고자 한다. 즉 시설책수와 연간 추정 작황, 그리고 자연적 요인으로 2006년 4/4분기 이후 2007년 1/4분기에 걸친 해수온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이중 시설책수는 김 양식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시설의향을 설문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2007년산 김 총시설책수를 추정하는데 추정책수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두 번째로 연간 추정 작황은 1년간 1책에서 생산되는 김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책은 2.2×40m를 기준으로 하며 김 생산량으로 환산되는 마른 김 1숙은 물김 2.411kg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해수온도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금년 겨울 엘니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앞의 두 요인으로 고려된 생산량을 최대 생산량으로 보고, 여기에 해수온도가 1℃ 상승한다는 가정을 하한치로 보아 3% 정도를 최소치로 본다.

이렇게 볼 때 2007년산 김 총시설책수는 69만 7,512책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연간 추정 작황은

6)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WMO에서는 최근 동태평양 열대지역과 에콰도르 페루 인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등 전형적인 엘니뇨 초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예보는 적도 인근국인 말레이시아 기상국 등에서도 한 바가 있고, 미국 해양대기국(NOAA)도 7일 “동태평양 적도해역의 표면 수온이 예년보다 2도 가량 높아졌고 이 해역의 강수량도 크게 늘어났다”며 엘니뇨의 징후를 발표하였다. 한편 엘니뇨란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 또는 ‘사내 아이’라는 뜻으로서 보통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태평양의 적도 인근 해역의 수온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상승하면서 세계 곳곳에 폭풍, 홍수, 가뭄 등 재난을 몰아오는 이상 기후현상을 말한다(중앙일보 2006년 10월 12일).

〈표-14〉 2007년산 김 생산량 추정 결과

구분	2007년산	
	평년 추정치	특별 자연적 요인 고려
시설채수 전망(채)	697,500	697,500
연간 추정 작황(속)	144.1	144.1
총생산량(천 속)	100,500	97,500

추세치를 감안할 경우 98.21속/채이나 이는 전라남도의 공식생산량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관측센터에서 추정한 2006년산 총생산량 1억 1,000만 속으로 환산한다면 144.1속/채이 된다. 따라서 연간 추정 작황은 144.1속/채으로 환산하도록 한다.

2) 추정 결과

이상의 방법으로 추정된 2007년산 총생산량은 1억 50만 속이 된다(〈표-14〉 참조). 이는 연간 추정 작황을 과거 추세치에 의해 추정한 것으로서 일정한 오차범위 내에서는 타당한 추정치로 판단된다. 다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7, 8년의 주기로 발생하는 엘니뇨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추세치만으로 연별 변화에 따른 오차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엘니뇨는 어선 어업뿐만 아니라 해면양식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엘니뇨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을 감안한 특별 자연적 요인을 고려하면 9,750만 속으로 추정된다.

V. 시사점

이상으로 최근의 김 생산동향을 살펴보고 2007년산 김 생산량을 추정해 보았다. 2007년산 김 생산 추정결과는 평년 추정치가 1억 50만 속이고, 최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니뇨에 의한 특별 고려사항을 감안하면 9,750만 속이 된다. 이는 2006년산 김 생산량 1억 1,000만 속과 비교하면 10% 전후의 감소를 의미한다.

한편 경제성장과 기술개발의 영향으로 그동안 김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가격이 정체상태를 빚고 있는데 이는 유류대와 인건비의 상승, 각종 자재대의 상승을 감안한다면 실질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생산자 실질 수취가격의 하락은 생산자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김 생산량을 더욱 늘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 실질 생산량은 1억 1천만 속까지 이르러 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정체로 김 산업이 활기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산량 감소가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부정적인 요인을 파생시킬 수 있으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러한 부정적인 요인으로서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김에 대한 수요감소를 야기할 수 있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상승한 가격에 고무되어 2008년산 김 생산을 위한 시설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적정 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산 시설부터 불법시설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유통협약사업을 통한 물김 폐기사업 등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산 생산량이 1억 1천만 속까지 증가하였음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시설증대는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김 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2006년 역시 지역별로는 불법시설물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더 늘어난 곳도 있어서 지역 간 대립을 야기할 뿐 아니라 상호경쟁적 시설 경향을 부분적으로 보였던 적이 있으므로 2007년산의 가격상승을 계기로 이러한 움직임이 다시 일어난다면 김 산업의 안정화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07년산 김 생산 감소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김 산업을 합리화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물김 생산자와 이를 원료로 하는 마른김 생산자 간의 대립구도를 상호협력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김 생산량이 많을 때는 마른김 생산자들이 담합하여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생산량이 적을 때는 물김 생산자들이 가격상승을 위해 출하를 기피하는 등 대립구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까지 이러한 양자간 대립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2007년산 생산이 본격화되기 전에 물김 생산자와 마른김 생산자 간의 대립문제를 항구적으로

풀 수 있는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량 감소를 계기로 김 품질의 고급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일 수출용 김에 대해서는 고급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용 김에 대해서도 고급 브랜드를 생산하여 김 수요를 확대하고 물김 생산자와 마른김 생산자 모두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생산 예측이 이루어졌을 경우 적정가격을 예측하고 예측된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특정 상인들에 의한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거나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기능이 발휘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잉여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관측백서」, 각 년도.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워크숍 결과보고서, 2005.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 수산물관측」, 각 월호.
5. 해양수산부, “김 산업 구조개선 계획”, 2003.
6. FAO,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각 년도.
7.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홈페이지
(www.kfta.net)